

초등생 공기총 살해사건 이후...

광주 실종·납치 신고 폭주

경찰서·소방서 하루 평균 5~10건

대부분이 오인 신고 ... 경찰 '골머리'

운전중 어린이를 친 뒤,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공기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광주지역 각 경찰서와 소방서에는 실종 또는 납치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귀가 시간이 늦은 어린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진 데다 울 들어 살인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수된 신고는 늦은 귀가에 대한 가족들의 우려로 인한 것이거나 남녀간의 사소한 다툼을 납치 등의 사고로 오해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광주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음주운전으로 광주 모 초교 4년 전모(10)군을 친 뒤 공기총으로 살해·유기한 이모(48)씨의 잔인한 범행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엔 하루 평균 5~10건의 실종·납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납치·실종 신고의 대부분은 오인 신고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9시에는 북구 운암동에서 행인 K(36)씨가 납치신고를 했다. 한 남성이 20대모 보이는 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끌고 갔다는 내용이였다. 북부경찰이 현장으로 경찰관 5명을 급파해 확인한 결과, 연인 사이의 20대 남녀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오인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오후 7시 북구 신안동에서 승용차 트렁크 위아래가 흔들리는 것을 본 행인의 납치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역도부 선수들이 트렁크에 역기를 신고 가는 것을 보고 착각한 행인이 오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고등학생의 신고도 있었다. 경찰이 이 어머니를 찾아나선 결과, 모임에 갔다가 술에 취해 잠실방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다음날 아침에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 잃은 차메 노인이나 귀가 시간을 넘긴 자녀를 걱정하는 나머지 실종 신고를 하는 사례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어 상황실 직원들은 물론 형사계 직원들도 매일 초긴장 상태다. 경찰은 신고인들의 접수 내용이 범 죄의 양상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약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매번 출동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오인 신고로 인한 잦은 출동으로 자칫 다른 강력사건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총기살해사건 이후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해져 납치나 실종신고가 폭주하고 있다."라면서 "엄터리 신고도 있지만 실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면허 발각될까 무서워 경찰 매단 채 30m 도주

북부경찰 30대 영장

이를 적발한 북부경찰 교통과 소속 S(38) 경사를 보닛에 매단 채 30m 가량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S경사는 손바닥 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정씨는 또 목격자 김모(44)씨 등 2명의 오토바이까지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정씨는 S경사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하려고 다가오자 무면허 운전과 지명수배 사실이 들뜬 것이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이를 적발한 북부경찰 교통과 소속 S(38) 경사를 보닛에 매단 채 30m 가량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S경사는 손바닥 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정씨는 또 목격자 김모(44)씨 등 2명의 오토바이까지 그대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정씨는 S경사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고지하려고 다가오자 무면허 운전과 지명수배 사실이 들뜬 것이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체포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일본에 도피 중인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이날 오후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일본 모 호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분당경찰서에 의해 강요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연합뉴스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일본에 도피 중인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가 이날 오후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경 일본 모 호텔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분당경찰서에 의해 강요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연합뉴스

나원침 (7838) 김장동



금품갈취 사이버기자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24일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모 환경신문 기자 천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모 일간지 기자 손모(53)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천씨는 2003년부터 275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 손씨는 지난해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멧돼지 피하다 산삼 발견 '횡재'

○40대 등산객 2명이 등산 도중 멧돼지를 만나 피해 달아나던 중 우연히 산속에서 산삼 일곱 뿌리를 발견하는 행운을 누리려 눈길.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등산객 신고(46)·박모(54)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지리산 쌍계사 인근 능선에서 우연히 천종산삼(감정평가액 8천만원) 일곱 뿌리를 발견.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이들은 산행 도중 만난 멧돼지를 피해 1km 가량 달아나다 휴식을 취하던 중 112g 이상 대형 산삼을 발견했는데, 신씨는 "전날 밤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발을 동동 구르는 꿈을 꿴다"며 연신 함박웃음.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침입 1분만에 '범행 끝'

소년원 동기 10대 4명 대담한 금은방 절도

여수경찰 2명 검거

소년원에서 만난 '겉잡은' 10대들이 유혹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금은방과 빈집을 털어오다 또 다시 소년원에 갈 처지가 됐다. 여수경찰은 24일 삼야시간에 금은방과 빈집 등을 턴 엄모(16)군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3시30분께 여수시 한 금은방에 몰래 침입, 돌로 진열대 유리를 깨고 금목걸이 등 귀금속 60여점(8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1분여 만에 끝내는 수법으로 금은방에 설치된 무인경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또 훔친 귀금속은 전북 남원으로 가져가 금은방에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등 10대 답지 않은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년원 동기로, 절도 전과가 각각 10여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유혹비 마련을 위해 계획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년원 동기 김모(18)군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또 최근 순천지역을 돌며 5차례 이상 빈집을 털어 귀금속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농업경영인들 "농업 회생시켜라" (사)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회장 정이성) 회원 50여명이 24일 옛 전남도청앞에서 '한·미 FTA 반대,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무등산서 40대 여성 변사체

광주동부경찰 수사

실종 여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무등산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동부소방서와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오께 '병소 등산을 좋아하는 고모(45)씨의 자살이 의심된다'는 가족의 신고에 따라 119구조대가 출동해 무등산 세인봉 일대를 수색하던 중 바위 아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변사체를 발견했다.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등산복 차림인 변사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백골화가 진행중이었다. 경찰은 "웃차림 등을 볼 때 변사체는 지난 4월 22일 가출신고된 안모(여·49)씨가 맞다"는 가족의 주장에 따라, DNA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다. 경찰은 또 변사체의 사인이 추락사인지, 타살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관계자는 "가족이 나타났으나, 현재 상황으로선 신원을 단정짓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마음은 열어도 신고정신은 철저히 간첩·안보사범 및 국제범죄 신고는 111

A large advertisement for '국립학점' (National Credit) featuring a stylized tree illustration and text promoting educational credit and services. The text includes '국립학점' and '국립학점'.